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2호 【루계 제24595호】 주체103(2014)년 7월 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화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2중3대혁명붉은기 화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륙군상장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부대장 륙군상장 한창순동지, 부대정치위원 륙군중장 우철동지와 화도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1999년 10월 이곳 섬방어대를 시찰하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표식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도방어대와 관련하여 수십차례의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늘 이곳 방어대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하시면서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군업적을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섬을 뒤덮은 수림과 병영을 감싸고있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 나무가 꽉 찼소, 소나무가 울창하니 화도가 아니라 송도라고 해야 할것 같소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가 실현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기 초소를 제 집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희한한 풍경을 펼쳐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감시소에 오르시여 방어대방어계획문건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지휘관들로부터 방어대의 전투임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해상에서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화력타격수단들의 배치와 화력진지리용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비롯하여 화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화도방어대는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의 방어전역에서 전초기지이며 당중앙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동해관문의 전초선이라고 하시면서 방어대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섬을 난공불락의 요새, 불침의 전함,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변시키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불사조들로 키우며 특히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억세게 다짐으로써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령해에 기여드는 원쑤들을 한놈도 살려두지 말고 검푸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에 불의에 포사격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감히 압살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을 안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일당백포병들은 신속히 사격준비를 끝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쌍안경으로 군인들의 화력복무동작을 주의깊게 보시며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멸적의 포탄들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모두가 명포수들이며 방어대장이 화력지휘를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였기에 명중탄을 날릴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포사격을 진행한 방어대 5중대를 《명포수중대》로 명명해주시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 3중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창고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2면으로 계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화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방어대에서 군인 일인당 매일 360여g의 콩음식을 먹이고있으며 식당마다에서는 물고기비린내가 풍기고 돼지, 오리, 게사니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식탁을 푸짐히 하고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잠자리가 마련되여있는 방어대의 중대들은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이고 방어대는 그들의 고향마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화도방어대에서도 려도방어대와 마찬가지로 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히 관철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축산업과 수산업, 콩농사 3대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이곳을 자랑많은 방어대, 부자방어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화도방어대 군인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3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군인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크나큰 영광과 꿈만 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화도방어대의 전체 군인들과 가족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고야말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배전에 서시여 부두가로 달려나와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

경색된 북남관계의 지속으로 국토분렬의 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통일을 소원하는 온 겨레의 통한은 더이상 방임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민족앞에 확약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고귀한 정신마저 여지없이 유린되여가고있는것이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가슴아픈 이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잡으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남조선당국과 제 정당, 사회단체들에 내보낸 우리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대한 호응도 랭담하였다.

지어 지난 2월 힘겹게 마련된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이룩한 소중한 합의마저 빈 종이장으로 되여가고있다.

여기에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가슴아픈 현실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우리 민족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엄중하게 번져가고있는 북남관계에는 아랑곳함이 없이 대결일면에 집착되여 주장아닌 《주장》과 선언아닌 《선언》으로 통일문제를 우롱하여온 남조선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속에서도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각계각층 민중의 목소리는 더더욱 높아지고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로 번져가고있다.

삼천리강토에 굽이치는 이러한 열기는 7.4공동성명발표 42돐을 앞두고, 민족의 구성이시며 대정치원로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북남최고위급회담에 관한 력사적문건에 불멸의 최종서명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7월 7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특히 7월부터 북남사이에 예견되고있는 여러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실무적일정들이 여론화됨에 따라 이러한 열기는 더이상 막을수 없는 열도로 타번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온 겨레의 념원과 민족모두의 민심을 반영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단호한 결심으로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특별히 제안한다.

1. 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 북남사이에 산적되여있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것을 민족앞에 다시금 확약하자.

자주의 원칙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민족앞에 약속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북남화해와 협력, 불가침에 관한 합의도 이룩하였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7.4공동성명이 채택된 42돐을 계기로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에 채택된 모든 성명, 선언들과 합의를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할것을 온 겨레앞에 다시금 확약할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아닌 《주장》, 선언아닌 《선언》들을 전면철회하고 동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조체제를 전면철폐할것을 요구한다.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귀중한 공동자산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고 우리의 병진로선을 헐뜯는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당면하여 자주의 원칙에 따른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대로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그와 관련된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호소한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천명한대로 2월합의를 순간에 리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

2. 평화통일의 원칙에서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온 겨레앞에, 세계앞에 보여주자.

평화통일의 원칙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다.

전쟁의 참화로부터 겨레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담보하려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이 원칙에 슴배여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군사적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그것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아무리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하여도 그 모든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어느때든지 통일된 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게 될 우리 겨레가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서해열점수역을 포함한 모든 대치계선에서 하루도 쉴새없이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도 7월 4일 0시부터 전면중지하는것으로 나라의 평화보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진솔한 립장을 밝힐것을 다시금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최근 남조선해군함정들이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해상침범행위와 5개섬수역에서 때없이 벌리고있는 총포사격중지문제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활발하게 벌어질 여러가지 교류와 접촉의 사전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여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뿐아니라 올해 8월 미국과 함께 벌리게 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계획을 즉시 취소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 군사연습이 언제나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구실밑에 우리를 겨냥하여 벌어지는 침략전쟁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서약한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고 란폭한 위배행위로 된다.

미국과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이 그처럼 버릴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조선반도령역을 벗어난 지역이나 수역에 나가 벌리라는 것이다.

우리에 대해 말한다면 최근 우리와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령공, 령해, 령토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것이다.

3.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자.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북남관계개선의 원동력이다.

사상과 리념, 제도우에 민족이 있다.

쌍방의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뭉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다.

갈라지면 망하고 하나로 합치면 강해지는것이 우리 겨레, 우리 민족에게 차례진 숙명이다.

우리는 민족의 구성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1994년 7월 7일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불멸의 최종서명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남조선당국은 화해와 협력에 불순한 정치적속타산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동족사이의 화해와 협력은 철두철미 동족을 진실로 위하고 도와주는 실천행동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동포애의 진정이 어린 화해와 협력을 상대방의 《체제전복》과 《흡수통일》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로 리용하려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동포애적인 자세와 립장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에 관한 진정을 묵살하거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차단한다면 그보다 더 엄중한 반민족적인 대역죄는 없을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도 통행, 통관, 통신의 《3통》질서를 불순하게 리용하려고 획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길에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외세가 씌워준 색안경으로 동족을 바라보아도 안되며 사대와 굴종으로 굳어진 머리로 북남관계를 대해서도 안될것이다.

외세보다 민족을 우선시하고 국제적공조보다 겨레를 중시하는 립장에 설 때 비로소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만이 겪고있는 수치와 비극의 분렬사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비분강개하여 떨쳐나서자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민족의 생사존망도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과감한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것이다.

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체103(2014)년 6월 30일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기계공업성과 잠업비단지도국, 강원도의 경공업공장들, 서해안의 제염소들, 안주뽐프공장의 로동계급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에서 뜻깊은 올해의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전기기계공업관리국, 룬전기계공업관리국, 공작기계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계획수행기간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낼 설비생산과 농업,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부속품생산을 힘있게 벌려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보낼 발전설비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성과를 확대하였다. 주강직장을 비롯한 소재부문의 로동자들이 상반년기간에 쇠물생산에서 기업소가 생겨 최고기록을 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굴착기생산과 전력, 석탄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아래 각지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요대상설비생산을 다그쳐 끌내는데 힘을 집중하여 각종 전기기계들과 그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룬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희천정밀기계공장,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상반년 영농부속품생산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공작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도 농업전선과 석탄전선에 보내줄 베아링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리 병 춘

잠업비단지도국에서

잠업비단지도국에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이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상반년, 년간계획 완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비단실생산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였다.

함흥제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원단위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면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매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였다.

강서제사공장, 성천제사공장의 로동계급도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찾아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면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박천견직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보다 깐지게 하는 한편 교대간 련계를 강화하고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여 담요와 비로도생산을 늘이였다. 특히 비로도직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직기들에 여러건의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비로도의 질과 생산성을 한단계 높이였다.

명변견직공장의 로동계급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을 발휘하면서 다색단, 데트론모시천 등 지표별계획을 끝내였다.

계획수행기간 비단실, 담요, 비로도, 다색단 등 중요지표별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강원도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 원산유리병공장을 비롯한 강원도의 여러 경공업공장들에서 기한전에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계획수행기간 도의 경공업공장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성과가 확대되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수지일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쓸모있고 쓰기에도 편리한 수지일용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원산유리병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유리병생산기지가 큰 은을 내도록 온갖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고 원료원천을 최대로 동원리용하여 질좋은 유리제품생산을 더욱 늘이였다.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과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원산곡산공장, 문천식료공장, 고산화학일용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원료원천을 최대한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경공업제품들과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원산맥주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광량만, 귀성, 금성제염소들에서

광량만제염소, 귀성제염소, 금성제염소들에서 상반년 소금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소금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올해 소금생산계획을 여러달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전망이 열림으로써 굴지의 화학공장들과 각지의 기초식품공장들에서 생산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광량만제염소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고 정신력을 총발동하는데 생산장성의 열쇠가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면서 생산단위별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였다. 제염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증발지관리를 잘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종전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생산하였다.

귀성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제염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단위가 분산되여있는 특성에 맞게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생산지도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직장간 련계를 강화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어 생산을 다그칠수 있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제3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투쟁을 벌려 소금생산에서 앞서나갔다.

제12직장의 초급지휘성원들과 로동자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금성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소금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상반년 소금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안주뽐프공장에서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5월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넘쳐 수행한데 이어 6월 18일현재 상반년 뽐프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는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물품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매달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청년가공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에 여러가지 지구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부분품가공시간을 훨씬 줄이고 정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청년조립직장에서도 완성된 부분품들이 넘어오는족족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조립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김오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원료, 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올해에 들어와 열풍식소둔로와 건조로에 새로운 배풍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봉세동무를 비롯한 주물직장의 로동자들은 종전의 주형들을 개조하여 주물품의 질과 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가공설비들에 PLC조종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새로운 종의 뽐프가 개발되여 해당 단위에 보내여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계획수행기간 석탄공업부문과 수산부문,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매달 많은 량의 뽐프를 생산보장하였으며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에 필요한 뽐프생산이 전부 결속되였다.

본사기자 류 성 국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연 6천여m의 물길을 정리

대관군 운창협동농장에서

대관군 운창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장마철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연 6천여m의 물길정리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일군들은 산간지대농장의 실정에 맞게 산골짜기들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제때에 뽑기 위한 물길정리에 중심을 두고 큰물피해막이작전을 통이 크게 하였다.

이들은 산기슭과 하천을 따라 뻗어있는 크고작은 물길들을 돌아보며 위험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당면한 영농공정들을 수행하면서 물길정리를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제6작업반구역의 1천여m 물길정리가 먼저 진행되였다.

관리위원장 박명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끌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큰물피해막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농장원들모두가 기세충천하여 떨쳐나섰다. 이들은 귀중한 토지와 땀흘려 심어가꾼 농작물들을 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나라쌀독을 가득 채울수 있다고 하면서 물길바닥을 깊이 파내고 제방들에 돌을 쌓아 든든히 보수하였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마음이 되여 공사를 빨리 끌낸데 이어 하천정리공사에 달라붙었다.

공사를 하면서 큰물이 제방을 넘어나지 않도록 만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특히 힘을 넣었으며 돌과 통나무를 리용하여 800m구간의 제방을 끄떡없게 쌓았다.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제3작업반구역의 물길정리도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제4작업반에서도 물길정리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산골짜기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쭉쭉 빠지게 하기 위해 물길을 넓히고 깊이 파내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가운데 1000m의 물길정리가 끝났다.

결과 농장적으로 연 6천여m의 물길이 정리되였다.

본사기자 김 성 철

양수기들에 만부하를 걸수 있도록

천내군관개관리소에서 장마철에 고인물을 제때에 뺄수 있게 배수양수기들의 수리정비를 끝내였다.

일군들은 현지를 돌아보며 배수양수기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기술자, 기능공들이 이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배수양수기들을 짧은 기간에 수리보수할 목표를 세운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일군들은 해당 부문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필요되는 부속품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기술자, 기능공들은 올해농사를 안전하게 짓자면 큰물피해를 막는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대의 양수기를 수리해도 설친데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관개관리소에서는 여러대의 배수양수기를 성과적으로 수리함으로써 큰물피해를 막을수 있게 하였다.

김 강 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광물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뜨거운 충정의 물결 굽이치는 태양의 성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고있는 만경대,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올린 력사의 이 집이 있어 지난날 식민지약소국으로 몸부림치던 우리 조국이 오늘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끝없이 찾고있으며 혁명의 성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지성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경대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곳이며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혁명사적지입니다.》

피현군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기업소에는 류다른 포전이 있다.

이 포전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가꾸어 해마다 만경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군 하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지난날 천대와 멸시속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을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내세우시려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더 잘 꾸려갈 신념을 안고 20여년전부터 이곳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묘목장에서 제일 보기 좋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포전에 옮겨심고 정성껏 자래웠다. 비록 몸은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심장속에 소중히 안고사는 만경대를 더욱 풍치수려하고 아름답게 꾸려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찬바람 세차게 부는 깊은 겨울밤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이른새벽에도 포전으로 달려나와 온몸으로 나무들을 감싸며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그들은 해마다 3월과 12월이 오면 정성껏 자래운 나무들을 잔뿌리가 상할세라 정히 떠서 만경대혁명사적지에 옮겨심군 한다.

수삼나무, 창성이깔나무, 정향나무 등 이들이 이렇게 20여년세월 만경대혁명사적지에 옮겨심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만 해도 20여종에 수만그루에 달한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만경대를 더 잘 꾸려갈 뜨거운 충정의 마음은 창덕학교 고급반 2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장대군학생의 가정에서도 깊이 느낄수 있다.

그의 가정에서는 여러해전부터 집앞의 터밭에 백도라지를 정히 심어가꾸고있다. 부식토와 두엄도 마련하고 비료도 충분히 주면서 정성껏 자래우는 백도라지들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갈 이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늘 모범인 장대군학생은 동생과 함께 해마다 이 터밭에서 정성껏 자래운 백도라지들을 만경대고향집 주변에 심어가꾸고있다.

평양천연향료연구소 연구사 신제희동무도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경대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그는 만경대혁명사적지의 원림보호를 위해 천연향살충제를 개발하기 위한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가정부인의 몸으로 연구소에서 살다싶이 하며 걸어온 과학탐구의 길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신제희동무는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과학연구사업을 이악하게 벌려 끝끝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천연향살충제를 개발하고야말았다.

그는 이 살충제를 리용하여 여러해전부터 만경대고향집주변을 록음이 우거진 혁명사적지로 더 잘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갈 일념을 안고 만경대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해마다 혁명사적지관리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관리도구들을 가지고 한해에도 여러차례 딸과 함께 만경대를 찾아 자기의 지성을 바치고있는 남포시 천리마구역 봉화동 63인민반에서 사는 최성옥동무며 오랜 세월 혁명사적지관리사업에 뜨거운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 20년세월 매일과 같이 만경대고향집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고있는 평양차량수리공장 기관차작업반 로동자 최은철동무, 오래전부터 많은 금잉어들을 자체로 길러 만경대고향집주변에 있는 못에 놓아주는 사업을 해마다 정상적으로 해오고있는 국가자원개발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수도와 멀리 떨어진 두메산골과 분계연선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충정의 마음을 읽을수 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려는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며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들 꽃 향 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고 높이 모시는 고상한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훌륭한 인민입니다.》

몇달전이였다. 평양—원산관광도로를 달리던 한대의 승용차가 급히 멈추어섰다. 두명의 녀성군인들이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흔들고있었다.

(무슨 급한 일이?)

두 녀병사가 차를 향하여 달려왔다.

《평양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가쁜숨을 몰아쉬며 한 병사가 물었다. 일행중에 있던 일군은 의아한 눈빛으로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군모밑으로 흘러나온 머리칼과 하얀 목달개가 달린 목깃이 땀에 젖어있었다. 보매 두 병사는 이 길에서 퍼그나 오래 서있은듯싶었다. 평양으로 간다는 일군의 말에 처녀병사들은 향기그윽한 들꽃묶음을 일군의 앞으로 쑥 내밀며 여돌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꽃묶음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드려주십시오.》

(아, 들꽃중대녀병사들!)

언제인가도 이 도로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들꽃중대녀병사의 들꽃묶음을 받은적 있지 않았던가.

일군의 머리속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였다. 들꽃향기를 두고 생각에 잠겼던 일군은 처녀병사들의 손에서 꽃묶음을 받아 옆자리에 정히 놓았다.

차는 다시 발동을 걸었다. 차창너머로 차렷자세로 경례하는 녀병사들의 모습이 멀어져갔다.

차안에는 그윽한 들꽃향기가 꽉 차넘쳤지만 일행중 그 누구도 방금 있은 일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만이 차안을 감싸고있었다.

온 나라에 소문난 들꽃중대의 녀병사들, 그들은 1994년 7월의 그날로부터 지난 20년동안 길가에 나와 평양으로 향하는 길손들에게 자기들의 지성어린 들꽃묶음을 만수대언덕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 꼭 드려달라고 그들은 이름도 주소도 모를 평양손님들에게 절절히 말하군 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처녀병사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도 온 나라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것이였다.

세월이 흘러 복무자의 세대는 바뀌여도 들꽃중대녀병사들의 충정이 깃든 들꽃묶음은 어제도 오늘도 만수대언덕에서 향기를 풍기고있다.

어찌 들꽃중대녀병사들뿐이랴.

녀병사들이 피워올린 들꽃향기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충정의 향기되여 흘러넘친다.

머나먼 섬초소군인들도, 평원군에 사는 나어린 소년단원과 애육원, 육아원의 원아들, 조국땅 방방곡곡에 사는 평범한 인민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 이 땅에 향기풍기고있다.

온 나라에 풍기는 들꽃향기,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세대가 바뀌여도 정녕 진하지 않는 우리 인민들의 충정의 향기, 보답의 향기되여 만수대언덕에 길이길이 넘쳐흐를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만수대언덕에서 만난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순간도 떨어져서는 못살 어버이품, 꿈결에도 잊고 산적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품을 찾고 그리며 스무해세월 수령님 생각으로 날과 달을 맞고 보낸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오늘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만수대언덕에 거연히 서계시며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내 조국의 영원한 승리를 축복해주고계신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낮이나 밤이나 끝없이 찾고 또 찾던 그리움의 언덕, 절세위인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한몸바쳐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던 맹세의 언덕에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스무돐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이 굽이쳐흐른다.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인민군군인들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로동자, 농민들, 최첨단돌파전, 두뇌전으로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과학자들…

우리는 여기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로동자 최영금동무를 만났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새날의 첫 일과도, 하루일의 총화도 바로 이 력사의 언덕에서 시작하고 마무리짓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만이 아니였다. 우리는 만수대언덕에서 국토환경보호성 아래단위 로동자 함정혁동무, 평천구역 륙교1동에서 살고있는 문학철동무와 그의 가정,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일하고있는 김성희동무, 력포구역 소삼정리에서 살고있는 리학남동무, 평원군인민병원 의사 정명실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들모두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수대언덕을 찾고 또 찾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지구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수대언덕으로는 한없는 그리움의 물결,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더욱 세차게 굽이쳐흘렀다. 수령과 인민과의 혈연의 정, 그 어떤 힘으로도 가를수 없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을 가슴뜨겁게 펼치며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7월의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오르고있었다.

그렇다. 인민은 언제 어디서나 이 성스러운 언덕을 가슴에 안고 살것이다.

꿈결에도 그리운 우리 수령님 밝아오는 부강조국의 새 아침을 가리키시며 어제도 오늘도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태양의 모습으로 높이 서계시는 만수대언덕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갈것이다.

이것이 올해의 7월 만수대언덕에서 다지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이고 철석같은 의지이다.

글 본사기자 리 남 호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원 산 에 서 공 연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6월 30일 원산시의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원도희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인들, 원산시민들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국방성 중앙군악단은 이날 공연에서도 로씨야의 고전음악과 현대음악, 세계명곡들을 세련된 기교와 높은 예술적형상력으로 훌륭히 연주하였다.

취주악 가극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으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색스폰독주 《챠르다쉬》, 트롬본독주 《검은 눈동자》를 비롯한 곡목들이 올랐다.

로씨야련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 왈레리 할릴로브가 작곡한 취주악 《선군승리행진곡》, 《친선원무곡》과 남성독창 로씨니작곡 가극 《쎄빌랴의 리발사》중에서 《휘가로의 아리아》는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취주악의 기백넘친 울림, 가수의 독특한 음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대한 뜨거운 공감의 마음을 담아 《동지애의 노래》와 《매혹과 흠모》를 부르는 출연자들의 진실한 형상과 관람자들의 적극적인 교감으로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였다.

로씨야인민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락천적성격, 생활풍습을 반영한 녀성독창 《까쮸샤》, 《왈렌끼》는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조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의 력사를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항구도시에서의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한편 이날 강원도인민위원회에서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시, 군들에서 군중대회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시, 군군중대회들이 진행되였다.

대회들에는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군중대회장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각계층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정주, 구성시, 선천, 의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시, 군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차별적인 살륙과 폭격을 감행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건물들과 살림집, 농경지와 산림을 파괴한 미제야수들의 만행을 폭로단죄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미제는 굴복시킬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연설자들은 침략의 무리들이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군대와 인민은 산악같이 일떠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비배관리를 깐지게 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수산물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며 자기 지방의 원료, 자재로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질좋게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자기가 사는 고장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성, 안주시, 신천군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64년전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침략자, 살인마, 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악랄한 정체를 드러내놓은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승냥이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을 잊을래야 잊을수 없으며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쑤격멸의 투지를 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하며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영활동과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더 많은 비료와 석탄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농촌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것이라고 말하였다.

삼천, 태탄, 강령, 세포, 고산, 안변, 성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도 군중대회를 가지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터치였다.

조국의 산과 들에는 살인마들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수백만 영령들이 눈을 감지 못한채 묻혀있다고 하면서 부모형제들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제를 죽탕쳐버리는 기세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억세게 틀어쥐고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훌륭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순천, 개천, 희천, 송림시, 북창, 금야군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이 땅에서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오직 시체와 죽음뿐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투철한 조국수호정신과 멸적의 기상을 지니고 탄광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리수복, 강호영영웅들처럼 한몸이 육탄이 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울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미제에 대한 분노의 웨침은 평산, 신계, 봉산, 경성군군중대회장들에서도 힘차게 울려나왔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산총대로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반미시위들에서 참가자들은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정의의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멸적의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 폐막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당의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과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기대회에서는 평안남도가 종합 1등을, 함경남도, 황해남도가 각각 종합 2등, 3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6월 30일 평성에서 있었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체육인들, 평성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김영훈체육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체육인들의 신념과 의지가 훌륭히 발휘되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체육인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금메달로 보답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체육인으로 더 잘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3차 국제의회연단회의에 참가하였던 안동춘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6월 30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가 마중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귀국

2014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와 이르띠쉬스끼예 조리 국제교예체조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6월 30일 귀국하였다.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의 까잔에서 진행된 2014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 타이를 비롯한 4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 260여명이 참가하였다.

녀자 75kg급경기에 출전한 김수정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16kg, 추켜올리기에서 134kg을 들어올려 종합 1위를 하고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김효심선수는 녀자 63kg급경기에서 종합 2위를, 림은심선수는 녀자 58kg급경기에서 종합 3위를 하였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까자흐스딴의 빠블로다르에서 진행된 이르띠쉬스끼예 조리 국제교예체조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까자흐스딴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수한 남녀선수 33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신윤철, 백미영선수들은 혼성2인조형에서, 장옥향, 지성선수들은 녀자2인조형에서 난도높은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각각 1위를 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이 평양비행장과 평양역에서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녀자력기 75kg급경기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김수정선수

국제교예체조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우리 선수들

연길-금강산국제관광단 도착

중국 연길천우국제려행사 유한공사 부총경리 박룡범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연길-금강산국제관광단이 6월 2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관광단은 조선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고 세계적인 명승지, 천하절승 금강산을 유람하며 평양시와 개성시를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게 된다.

비행기에 의한 연길-금강산국제관광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7월중 지자기현상

7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 (15-17시), 9일 (9-11시), 12일 (11-13시), 16일(14-16시), 19일(6-8시), 24일(10-12시), 27일(19-21시).

청진지방

5일(23-24시), 10일(10-12시), 12일(19-21시), 19일(6-8시), 23일(9-11시), 28일(12-14시).

민족의 어버이를 한없이 그리는 남녘겨레의 뜨거운 마음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한평생 못 잊습니다

삼천리강산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마음이 더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그리움의 7월, 못 잊을 7월이다.

피눈물의 1994년 7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으로 하늘도 비애의 눈물을 뿌리던 그때로부터 날은 가고 해가 바뀌여 어느덧 20년이 되여오지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 더해만 가는 우리 인민, 우리 겨레이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피어린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어버이수령님, 나라가 분렬된 그날부터 근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통일문제 때문에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시였고 나라가 통일되면 10년은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오로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 고귀한 생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겨레가 높이 우러르고 따른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다.

그 누구보다 겨레를 사랑하시고 조국통일을 절절히 념원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지새우신 밤은 몇백, 몇천밤이고 걸으신 길은 몇천, 몇만리이며 몸소 집필하신 조국통일로작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통일된 조국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바치신 로고의 나날들을 되새겨보느라면 뜨거운 감회와 격정이 갈마든다.

추억도 가슴뜨거운 어느해 4월 15일, 이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만시름을 놓고 편히 쉬셔야 할 뜻깊은 탄생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축원이 차넘치는 자리에서 깊은 심려가 어린 음성으로 오늘 한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이라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나의 맹세이기도 하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어느해 탄생일에는 동지들이 올리는 축배잔을 받으시고 민족의 절반을 남에 두고 이 잔을 들자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쓰린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한 기자가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는 인구도 적지 않으며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우리는 능력있는 기술자들도 많이 키워놓았다, 그런것만큼 조국이 통일되면 빠른 시일안에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새길수록 온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조국통일에 대한 그이의 절절한 념원이 그대로 어려있다.

그렇듯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시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조국통일의 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같은 조국통일3대헌장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헌장은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월이 흘러도 그토록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하며 그리움에 휩싸이는것이다.

예로부터 사람의 한생의 진가는 그의 마지막순간에 비낀다는 말이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을 어떻게 보내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어떤 불멸의 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는가에 대하여서는 력사가, 우리 민족사가 깊이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0고령이시였지만 지난 시기보다 더 완강히, 더 정력적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자신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6월 20일부터 7월 7일사이에만도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수십차례의 친필교시를 주신 사실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밤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정이 넘도록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며 부피두터운 력사적인 문건을 완성해나가시였다. 그러시고는

《김 일 성
1994. 7. 7.》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고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그 친필이 우리 수령님께서 남기신 마지막친필이 될줄이야 그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한생은 겨레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김일성주석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위인이시다.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최고위인으로 높이 칭송받고 계신다. 그것은 주석님께서 전세계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밝힌 새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10대의 어린시절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세계의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정치가이시기때문이다.》

《세상에는 정치가로 이름난 위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오직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해 헌신해온 그런 위인은 없었다.》

《우리모두 김일성주석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하고 주석께서 생전에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성취하기 위해 보다 과감히 매진하자.》…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들에 실린 이 글들은 고귀한 한생을 불멸불휴의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길에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겨레의 다함없는 칭송이고 그리움의 정화이다.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의 구성

인정미넘치는 자애로운 모습

오늘도 남조선의 수안보주민들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긍지가 깊이 간직되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뜻깊은 곳에서 산다는 바로 그것이다.

전화의 나날 몸소 수안보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작전방안을 세워주시고나서 그 지역의 농가들을 찾아주시였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던 80고령의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그곳을 찾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수수한 군복차림으로 마을에 오신 주석님께서는 마을농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형편을 자상히 알아보시며 살림살이도 일일이 걱정해주시였다오. 그분께서는 농가의 장독도 열어보시고 고추장맛까지 보아주시며 정말 맛있게 담그였다고 치하도 해주시였소. 아무리 세월이 흐른들 인정미가 그토록 넘치시는 주석님의 그 겸허하시고 환하신 모습을 어떻게 잊을수가 있겠소.…》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 진정넘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통해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못견디게 그리워하면서 열렬히 따르고있는 그들의 흠모심을 잘 알수 있다.

《겨레의 어버이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53(1964)년 여름 어느날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남조선어민들을 구원해주시고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신 이야기는 겨레의 마음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낡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민들이 풍랑에 실려 우리측 령해에 표류해온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즉시에 해군함정들을 출동시켜 그들을 구원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취해주신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에 의해 사나운 풍랑속에서 구원된 남조선어민들은 어려운 생활난에 부대끼며 생긴 중병들을 말끔히 털어버리게 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은정깊은 생일상도 받아안게 되였다.

대를 두고 전해가는 이야기

오늘도 림진강기슭의 주민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에 있던 철다리를 건느시여 서울에 오셨던 사실을 전설처럼 전해가고있다.

침목이 드문드문 깔린 철다리, 그밑에선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강물이 사품쳐흐르고 하늘에서는 미제침략군비행기의 아츠러운 굉음이 그칠새없이 들려오는 그 위험한 곳을 지나 남녘인민들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은 그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이 고장 토배기로인들은 한 나라의 령수가 철다리우로 차를 달려 백성들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있어본적이 없었다고, 이것은 오직 민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결으실수 있는 숭고한 사랑의 길, 대대손손 전설로 전해갈 위인설화라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속에 이 고장 사람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뜻을 이으신 영명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 통일의 선물을 안으시고 이곳 림진강을 건느시여 이남백성들을 꼭 찾아주실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경모의 정 노래와 시에 담아

무릇 사람들은 시와 노래를 두고 시대의 숨결이며 심장의 토로라고들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를 모시고 따르려는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은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실리는 가사와 시작품들을 통해서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그가운데서 가사 《영원히 태양으로 받드옵니다》를 여기에 싣는다.

1. 희망으로 우러르는 태양의 영상
마음속에 언제나 계시옵니다
어두운 남녘땅에 광명을 비쳐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후렴: 영원히 태양으로 영원히 어버이로 모시렵니다
영원히 태양으로 영원히 어버이로 받드옵니다

2. 용맹으로 부르는 태양의 그 이름
자나깨나 언제나 부르옵니다
싸우는 남녘땅에 투지를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후렴:

3. 필승으로 새기는 태양의 높은 뜻
심장속에 언제나 맥박칩니다
조국땅 삼천리에 통일을 불러오신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후렴:

남녘의 한 로동자시인은 《백두산에 안기리》라는 제목의 서사시에 이렇게 썼다.

…
아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을
통일대문을 열기 위하여
숭고한 로고를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장군님
…
수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다
영원히 수령님은
백두산의 태양
주체의 태양으로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수령님은 민족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수령님은 인류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

본사기자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잊혀지기마련이라고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정말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중을 위해 한평생 로고를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7월이 오면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이남민중을 위해 베푸신 사랑이 더욱 사무쳐옵니다.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어찌 김일성주석님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에 가있습니다.》

남녘겨레들이 터치고있는 이 말속에 얼마나 뜨거운 진정이 스며있는것인가.

태양의 미소를 밝게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심장속에 간직한 남조선의 한 주민은 《빛나는 태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낸 한편의 수필에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
김일성주석님의 사진을 보고 있느라니 자꾸만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다.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영상,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그 영상은 분명 태양상이다.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그날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주석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민중들속에 계시며 민중과 고락을 같이하시고 민중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락으로 여기셨다. 그분께서 우리 민중과 인류를 위해 쌓으신 업적을 어찌 글이나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
10대에 벌써 온 민족의 념원이 담긴 불멸의 태양의 존함을 지니시고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절세의 애국자, 분렬된 강토, 갈라진 민족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시며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시려 그 길에서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깡그리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해 심려하시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흠모의 마음안고온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을 접견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도 이름있는 통일사절을 만날 때가 더 기쁘다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은 겨레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간직되여있다.

하기에 남녘인민들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을 그토록 못 잊어 그리며 7월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과 마음들은 그이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고있는것이리라.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력사에 길이 빛날 애국애족의 한평생으로 열렬히 칭송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경모의 정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 종교인들속에도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던 한성준은 《사랑의 태양》이라는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김일성주석을 맞이하게 된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존함그대로 태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였다. 우리 민중이 그분을 태양으로 칭송한것은 그분의 모습에서 하늘의 태양에만 비길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빛을 보았기때문일것이다.

그분의 80여평생은 인간에 대한, 민족과 인류에 대한 위대한 참사랑의 력사였다.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인류는 그분을 우러러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태양으로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한없이 그리는 겨레의 마음은 이토록 뜨겁고 열렬하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태양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온 겨레가 심장으로 부르는 태양칭송의 노래는 끝없이 울릴것이다.

본사기자

태양의 그 업적 겨레의 심장속에 빛난다

투쟁의 불을 지펴준 격동적인 시랑송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회 작가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격식없이 진행된 합동공연

조선인민내무군 김영남소속 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장앞에서 부대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작가들은 합동공연을 진행하였다.

층층 뻗어오른 계단 하나하나에도 건설자들의 구슬땀 슴배인것으로 하여 무심히 밟을수 없다고, 건설장에 펄럭이는 저 붉은기가 격전의 추억들을 전하는것 같다고 불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리창식동무의 시가 울려퍼진 다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노래 《단숨에》를 힘차게 부르며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김석천동무의 시 《그리움에 불타는 땅》이 랑송되자 군인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은 완공된 거리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더욱 뜨거워지는 그리움으로 세차게 설레이였고 힘찬 화선선동원의 목소리와 더불어 환희의 그날을 앞당겨갈 열의로 끓어번졌다.

뒤이어 울려퍼지는 박정철동무의 시 《10월에로 가는 길》, 박상민동무의 시 《세계로 보라》도 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맡은 탁아소건설장과 살림집건설장앞에서도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예술선전대원들과 작가들의 격식없는 합동공연이 진행되였다.

위성과학자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 펼쳐주시는 사랑의 별천지라고 격정을 터친 류동호동무의 시도 훌륭했고 처녀돌격대원들의 수고와 더불어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김진주동무의 시 《처녀돌격대원, 그 이름과 함께》도 돌격대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작가들의 시랑송에 뒤이어 구혜경, 김윤미동무를 비롯한 예술선전대원들이 울려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은 건설자들의 심장을 울리며 위훈과 혁신에로 고무추동하였다.

하루빨리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오려는 한결같은 마음은 이처럼 격식없는 화선선동무대를 펼쳤다.

백번, 천번 들어도 좋다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린 작가들에게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의 병사들이 찾아왔다. 자기들이 일하는 전투현장에서도 시랑송을 해달라는것이였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과 린접한 단위에서 진행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회 작가들의 시랑송을 이미 들었었다.

허나 군인건설자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반영한 좋은 시는 백번, 천번 들어도 싫지 않다고 하였다. 작가들은 병사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기로 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의 공훈방송원 윤경희동무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에게 우리 병사들이 즐겨부르는 명곡의 가사들을 많이 창작한 판록있는 작가들이 찾아왔다고 즉흥방송을 멋들어지게 하여 시랑송분위기를 돋구어주었다.

문용철동무가 시 《나도 공병부대 병사였다》를 읊었다. 그대들처럼 어깨우에 푸른 견장을 달고 그대들처럼 조국이 부르는 건설장들에 위훈의 땀젖은 군화자욱을 새겨온 나도 공병부대의 병사였다고 하며 병사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랑송에 군인건설자들은 열렬히 호응하였다. 노래의 재청은 있어도 시의 재청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작가들에게는 예상외의 반응이였다.

작가들은 련이어 건설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담아 즉흥시를 읊기 시작했다. 작가 한동선동무는 시 《나도 집을 짓는다》를 격정에 넘쳐 랑송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과학자들이 살림집을 지을 때 자기는 노래의 집을 짓는다는 시인의 섬세한 감정은 병사들의 가슴에도 흥분의 파도를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는 완공의 날이 오면 우리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고 간절히 아뢰이며 시집을 보여드리겠다는 한동선동무의 시는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였다.

정말이지 천만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시 한편한편은 병사들의 심장에 재워지는 총탄이며 폭탄이라고 하면서 공훈방송원은 우리 병사들이 좋아하는 시, 우리 병사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더 많이 지어달라고 작가들에게 부탁하였다. 작가들에게는 공훈방송원의 그 말이 현실속에서 명작을 써내기를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당부처럼 들려왔다.

시인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아도 건설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며 온 건설장을 들었다놓았다. 작가들은 군인건설자들에게 가지고온 시집도 안겨주며 약속했다. 백번, 천번 들어도 좋은 시를 더 많이 창작한 후 또다시 만나자는것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 성 근

붉은기를 안고 사는 마음

평안남도고려병원 로동자 강옥동무

지난 3월말 어느날이였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일떠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찾아가는 한 녀인이 있었다. 평안남도고려병원 로동자 강옥동무였다. 그의 등에는 부피가 큰 배낭이 지워져있었고 손에는 지함이 들려있었다.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이 한눈에 안겨왔다. 며칠사이에 건설장의 면모가 또 달라졌다. 문득 그의 심중에 처음 원호물자를 안고갔을 때 군인건설자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가져다준 붉은기가 래일이면 더 높은 곳에서 휘날릴겁니다.》

강옥동무의 입가에 미소가 피여올랐다. 결싸게 일손을 놀리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은 볼수록 대견하기만 했다.

(언제 봐야 담차고 믿음이 가는 저 모습들에 누군들 정이 들지 않을라구.)

그는 급히 지함을 들고 건설장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것은 결국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입니다.》

강옥동무가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붉은기가 있다. 언제인가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였을 때 가슴에 새긴 붉은 기폭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하늘같은 공적을 이룩하시고도 한폭의 붉은기만을 안고가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생각할수록 자식의 도리, 전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이 그의 마음속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붉은기는 곧 그의 신념이였고 생의 순간순간을 충정과 의리로 불타게 하는 불길이였다. 강옥동무의 심장은 휘날리는 거센 기폭처럼 더욱 높뛰였고 보답과 실천의 일념으로 세차게 고동쳤다.

지난해 그는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와 함께 150개의 붉은기를 안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아갔다.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당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보폭에 저도모르게 발걸음이 따라섰다. 원호물자를 준비해가지고 또다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아가던 어느날 새벽이였다. 달리던 뻐스가 갑자기 고장으로 멈춰섰다. 건설장까지는 아직 수십리를 더 가야 했다. 군인건설자들이 기다리는것만 같아 가슴을 조이던 강옥동무는 뜻밖의 광경에 놀랐다. 지함들에 씌여있는 《원호물자》라는 글발을 띄여보던 길손들이 자기들이 들어다주겠다며 지함들을 안고 뻐스에서 내리는것이였다. 바쁜 길을 지체시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거듭 되이는 강옥동무에게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아무리 바쁜들 원군길에 비기겠습니까. 인사는 오히려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가 걷는 원군길은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건설장과 청춘거리 체육촌개건보수공사장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옥류아동병원건설장에 찾아갔을 때였다. 군인건설자들에게 원호물자를 넘겨주고 돌아서던 강옥동무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며칠전 옥류아동병원건설장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소개하는 편집물이 텔레비죤으로 방영되였다. 텔레비죤화면으로 흘러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던 강옥동무의 눈이 삽시에 커졌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을념도 잊고 기운차게 일손을 다그치는 군인건설자의 모습이 남달리 눈길을 끌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바라보니 분명히 아들의 모습이였다. 강옥동무의 입에서 불시에 아들의 이름이 튀여나왔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던 강옥동무는 건설장의 여기저기를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금시라도 달려가 아들을 안아보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머리를 저었다. 자기들의 상봉을 보며 다른 군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그들에게도 부모들이 있다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다.

(아들아, 이 어머니를 리해해다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들모두의 어머니가 되고싶은것이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인줄 알아다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강옥동무는 이를할수 없는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자기가 마련하여 보내준 300개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건설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다는 무한한 기쁨이 갈마들었다. 그날 강옥동무는 건설장이 바라보이는 고개길에 올라 불같은 맹세를 더욱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병사들의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옥동무가 올린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은정어린 친필도 보내주시였다. 강옥동무는 오늘도 붉은기를 마음에 안고 신념의 길, 애국의 길을 곧바로 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만민의 어버이

유럽땅을 뜨겁게 달구어준 위인칭송의 열풍

력사에는 이름을 남긴 정치가, 령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걷고 또 걸으시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로고와 심혈을 보여주는 수자가 있다.

조국해방후부터 생의 마지막 나날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 120명, 정부수반 76명, 당수반 206명, 7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을 접견하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52만여㎞에 달하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연 87개 나라를 국가방문하시였다. 이것은 세계의 그 어느 이름있는 정치가, 령도자의 전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수놓을수 있는 혁명실록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걷고 또 걸으시였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시는 걸음마다에서 자주의 새시대가 창조되고 인류의 밝은 앞길이 펼쳐진다고 하면서 위인흠모와 그리움의 마음, 칭송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우리 잠시 위인칭송의 열풍이 유럽나라들에 휘몰아치던 지난 세기 80년대의 나날들을 돌이켜보자.

주체73(1984)년 5월이였다.

오래전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남달리 존경하고 흠모하여온 유럽나라 지도자들의 절절한 념원에 의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들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은 유럽나라들을 들끓게 하였다. 그 어느 나라라 할것없이 명절분위기로 설레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첫 방문일정으로 쏘련에 도착하신 순간부터 모스크바에서 온 영접일군들과 지방 당, 정권기관 일군들, 수많은 군중들은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우리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일찌기 없었던 최상최대의 환영과 꽃바다가 펼쳐졌다.

모스크바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들고 꽃다발과 기발을 흔들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우리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당시 여러 나라 신문들은 이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면서 《김일성주석에 대한 쏘련측의 영접은 외국수반에 대한 최상급의 환영을 보여주었다. 최고수뇌진이 마중한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열풍은 쏘련만이 아니라 온 유럽땅으로 퍼져갔다.

여러 나라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은 우리 수령님을 가장 친근한 벗으로, 혁명선배로,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였다. 마쟈르의 당제1비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기 나라 방문의 력사적의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커다란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지고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어느 한 나라의 당정치위원은 연회석상에서 혁명가요를 부른 다음 《김일성동지 만세!》를 힘있게 웨치였다.

이것은 인류력사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의 표시인 동시에 위인을 자기 나라에 모신 기쁨과 환희의 분출이였다.

이국의 자연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환영하여 신기한 현상을 펼치였다. 우리 수령님의 방문기간 유럽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리군 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영접일군들과 환영군중들은 누구라없이 날씨때문에 걱정하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수령님께서 도착하시는 시각에는 방금 쏟아지던 비도 멎고 먹장같은 구름도 사라지면서 해가 났다. 자바이깔스크에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만 하여도 씨비리바람이 이곳의 초원을 휩쓸고 날씨가 을씨년스러웠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도착하시자 바람은 잦고 날씨는 여느때없이 좋아졌다. 이런 일은 마쟈르의 수도 부다뻬슈뜨에서의 영접행사때와 뿔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서의 환송행사때에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앞에서 사람들은 하늘도 김일성동지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이이시야말로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촬영가는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인민들이 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양이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태양이 솟으면 비도 멎고 날씨도 개이기마련이지요.》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흠모하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실로 유럽땅에 울려퍼진 환호성과 우리 수령님에 대한 뜨겁고도 극진한 환대는 유럽력사에는 물론 그 어느 대륙의 력사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사변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럽방문은 우리 수령님께서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얼마나 정력적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였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력사적화폭이다.

김일성동지의 유럽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특기할 사변으로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회주의운동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국제적사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여마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유럽나라들을 방문하시면서 하신 연설들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강연회, 기념모임, 련합토론회, 시와 노래발표모임, 담화발표, 전문과 편지 등 서로 다른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 수령님의 외국방문성과를 축하하고 세계사적사변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를 헐뜯던 서방언론들도 세계외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열풍은 유럽땅에서만 일지 않았다. 세계곳곳에서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위인적풍모에 대한 일화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다함없는 흠모와 격찬으로 이 행성을 뜨겁게 달구었다.

우리 수령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인류자주위업은 큰결음을 내디디게 되였으며 력사는 자기의 궤도를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인류에게 밝은 빛을 주는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하며 그이에 대한 만민의 흠모와 그리움, 칭송의 열풍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질것이다.

본사기자

혁명의 귀중한 재보, 훌륭한 교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오늘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 급속히 전파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은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탐독하면서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주석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수놓으시였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의 길은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장정이였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한평생은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높이 격찬하였다.

중국의 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재부이며 훌륭한 교과서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두 나라 로세대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해 마련해놓은 고귀한 혁명정신과 전통을 한시도 잊지 말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바란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지난 기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출판발행되여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이 나날 세계 진보적인류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래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 희망의 등대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독보회와 연구토론회가 진행되고있으며 출판발행식들이 련이어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독보한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회고록에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력사가 집대성되여있다. 주석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였다. 그이의 회고록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교과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꽁고의 한 인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독보한 후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이 과정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인품에 매혹된 수많은 혁명동지들이 그이를 따라 혁명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그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쳤다.

정녕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인품을 지니신 김일성주석처럼 동지가 많고 벗이 많으신분을 력사는 알지 못한다.》

어느해인가 브라질 빼르남부꾸주 레씨페시문화쎈터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발행식에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은 인민의 해방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모든 혁명가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참된 교과서이라고 높이 격찬하였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다.

로씨야신문 《올라지보스또크》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은 진정 인민적수령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주석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것처럼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구호는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그이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였다.

주석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 벌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탐독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심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오스트리아단체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호소문 지지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가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6월 1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국제적인 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할데 대한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호소문을 적극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혁명사상을 온 세계에 널리 보급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의 최고의 재부이며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영국단체 성명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영국조선친선협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가 세계 여러 나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에 보낸 호소문을 적극 지지한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였다. 주석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을뿐아니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한분이시다. 주석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인사들이 6월 17일과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위대한 태양이시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엠. 자한기르 칸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뜨겁게 회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한없는 그리움

따사로운 봄빛마냥 자애에 넘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의 미소를 우러러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칭송의 목소리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맺은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중국의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중국의 항일혁명렬사 장울화의 딸 장금록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다. 주석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영원히 빛나는 생을 안겨주시였다. 주석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우리 아버지는 조선인민 누구나 다 아는 혁명렬사로 오늘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살아있게 되였다. 주석님께서는 떠나간 아버지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늘 추억하시였으며 우리들에게 아버지에게 못다 준 사랑을 다 합쳐 뜨거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우리 집식구들을 만나주실 때마다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자식들을 만난듯 반가와하시며 최대의 환대를 돌려주시였다. 우리들은 주석님을 큰아버지라 스스럼없이 부르며 친부모의 품에 안기듯 그이의 품에 안기군 하였다. 지금도 주석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모세타를 정성껏 마련하여 올렸던 때의 일이 눈앞에 삼삼하다.

나는 우리들을 친자식처럼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주석님의 은정에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이고싶어 직접 모세타를 껴서 탄생일을 맞으시는 그이께 올렸다. 그때 주석님께서는 오빠와 저의 가족모두를 평양에 불러주시고 내가 올린 자그마한 선물을 만족하게 받아주시였다.

주석님께서는 그자리에서 제가 올린 소박한 모세타를 입어보시며 꼭 맞는다고, 빨리 사진을 찍으라시며 오빠와 저를 몸가까이 세워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온 가족이 주석님을 모시고 한식솥이 되여 기념사진을 찍게 되였다. 떠나간 아버지의 삶을 빛내주시고 우리들을 한해에도 여러차례나 몸가까이 불러주시며 최대의 특혜를 베풀어주신 주석님의 은덕은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수 없다.

정말이지 김일성주석님처럼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함께 싸운 전우들과 그들의 자식들까지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그런 령도자는 세상에 다시 없을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육친의 사랑은 김정일총비서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졌으며 오늘도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흠모의 목소리는 중국의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풍중운의 아들 풍송광과 그의 가족에서도 뜨겁게 울려나왔다.

풍송광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싸우던 때의 이야기를 감회깊이 들려주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아버지가 혁명투쟁을 벌리느라 어머니의 소식도 모르고있으면서도 끝까지 기다렸다는데 대해 추억하시였다. 그때 나는 주석님께서 반세기를 헤아리는 세월이 흘러갔어도 아버지를 그렇듯 정깊게 추억해주실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주석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있는 아버지를 다시 보는것만 같은 충격을 받게 되였다.》

풍송광의 안해도 그날에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을 스스럼없이 터놓았다.

《주석님을 만나뵙는 첫 순간에 정이 깊으신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조선에 갔을 때 주석님으로부터 최대의 환대를 받았었다고 늘 외우군 하셨는데 직접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고보니 그 말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그렇듯 인정깊고 자애로운 분이시였기에 중국의 혁명가들이 진심으로 주석님과 형제적우정을 맺고 공동의 혁명위업실현을 위해 생사를 함께 하며 싸워이길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동지의 인덕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어찌 이들만이 터친 심장의 웨침이라 하겠는가.

세계 진보적인류가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그리워하며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정녕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국제주의적의리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시며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백 산 해

장울화렬사의 딸 장금록과 남편 악옥빈

풍중운렬사의 아들 풍송광과 안해 하소선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옳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그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의 핵때문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가 긴장해지고있다느니, 우리가 핵만 포기하면 대화도 있고 경제적혜택도 차례질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들을 줴쳐대고있다. 그런가하면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 망발을 마구 늘어놓고있다.

원래부터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사태를 외곡하는데 이골이 난자들이 늘 외워대는 맥빠진 넉두리여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여론화하고있는 사실은 그대로 스쳐지나보낼수 없다. 얼마전 그들은 어느 한 신문에 낸 글에서 아시아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해 론하면서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며 미국, 남조선과 관계를 개선하고 유관국가들이 조선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할 때만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이다. 말하자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악화의 원인이 우리의 핵보유에 있으며 때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첫 공정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것이라는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치도 우리가 핵을 보유하였기때문에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 리유와 그 력사적과정,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선행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본의든 아니든 조선반도평화보장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순차가 있기마련이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도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며 이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먼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번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결코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대륙을 지배할 야망을 품고있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반도에 저들과 사상과 제도가 다른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애초부터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야망만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힘과 경제봉쇄, 국제적압박 등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여기에서도 군사적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공화국에 핵을 동반한 군사적위협과 공갈을 끊임없이 들이댔다. 그 직접적산물이 바로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이다. 미국은 이때 벌써 우리에게 핵공갈을 하였다.

전후 우리 인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더욱 가증되였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1970년대 중엽에 1 000개를 넘어섰다. 남조선은 말그대로 핵화약고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써먹기 위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와 1981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 창설안을 비롯하여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미국은 이 모든것을 거부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이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담보한것을 중시하고 그것이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약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조약을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과 저들의 강권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였다.

미국은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이것은 그 어떤 국제조약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 핵위협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해주는 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국제조약을 악용한 미국의 핵위협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은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국가의 최고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탈퇴할수 있다는 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리행사였으며 응당한 자위적조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극도에 이르렀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 우리 인민이 핵참화를 입을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였다. 엄혹한 사태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오직 핵위협을 억제할수 있는 핵으로 대응하는것뿐이였다.

우리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 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밀어준셈이다.

일부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우리의 핵때문에 조선반도정세가 긴장해지고있는것처럼 떠드는것은 주객이 전도된 론리로서 미국이 하는 강도적주장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과 남조선과의 관계개선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대화제안을 내놓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대화와 협상을 위해 미국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자제력과 인내성을 발휘하며 모든것을 참아왔다. 그 어떤 전제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임의의 형태의 대화에도 나설수 있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허심하고 진지하였다.

미국의 자세와 립장은 완전히 딴판이였다. 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허황한 날조선전을 일삼았다. 국제무대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대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으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파괴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국은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는 시각에 조선서해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폭격연습을 강행하고 련이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대화분위기를 흐려놓았다. 미국은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최대적수》로 규정하고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 무력제압을 통해 결정적승리를 이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목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우리가 경제발전에 힘을 넣지 못하게 하고 궁극에 가서는 군사적방법으로 우리 공화국을 거꾸러뜨리려 하고있다. 미국은 대화를 바라지 않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미사이에는 진정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조미관계와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모든것은 명백하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조선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61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핵전쟁위험이 떠돌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고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과제이다.

이것은 오직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이 종국적으로 청산될 때 실현될수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미관계는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보장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핵전쟁을 억제할수 있는 강한 물리적힘, 핵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어떤 정치적흥정물이나 경제적거래물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중지하는것, 바로 여기에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방도가 있다.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옳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리 학 남

ㄱ-411020(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